

일본 불교, 지나친 상업화로 '쇠퇴의 길'

장례식장·술집·카페 등 운영에 비난 여론 '붓물'

일본에서 불자가 해마다 급감해 큰 위기를 겪고 있다. 이에 더해 일본 불교계는 해결책으로 '상업화'를 내세워 더한 우려를 낳고 있다.

'The Irish Times'는 11월 12일 "승려 요시노부 후지오카(Yoshinobu Fujioka)는 불교가 젊은 세대에 다가가기 위해선 쾌락으로부터 벗어난 금욕만 강조하는 설교에서 벗어날 것을 주장하고 있다"며 "그 때문인지 최근 후지오카 스님은 밤에 술집에서 종종 발견된다"고 보도했다.

'The Irish Times'에 따르면 후지오카 스님은 도쿄 한 복판에 위치한 불교 종단이 운영하는 술집 '보우즈(Vowz)'에서 고객들을 응대하고 있다. 후지오카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포교하는 방법에는 다른 경로가 있다. 영적 각성은 '대화'로부터 오는 것"이라며 "젊은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세태를 두고 일각에선 '지나친 상업화'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일본은 최근 불자 수의 급격한 감소를 보이며 '금욕주의 기피' 성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상업과 쾌락을 멀리하는 것이 불교 교리지만, 불교 교세가 쇠퇴하며 재정적 문제 해소를 위해 일부 사찰들이 장례식장, 술집, 카페 등 운영에 뛰어든 것이다. 특히 사찰의 장례식업이 독보적이다. 맨

체스터 대학의 종교 전문가 이안 리더(Ian Reader)는 "수세기 동안 일본 불교계는 영적 치료를 실시한다는 명목으로 장례식업을 독점하다시피 했다"면서 "일본에서 불교식 장례식을 치루기 위해선 1회 최대 3백만 엔(한화 약 3천만 원)이 소요된다. 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수준"이라고 고발했다.

친숙함 주장하며 상업성 '기세'
독점해 온 장례업도 명목 잃어
"인간존엄성 해치는 행태"
스님 고령화 등 문제 극심

'The Irish Times'에 따르면 높은 장례비용에 비해 서비스 수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매장비용이 지출되는 부분에서 가장 불만이 쏟아지고 있으며, 화장할 경우 유족들이 떠난 사람의 잔해를 쟁반에서 세라믹 항아리에 젓가락으로 옮겨 담는 과정들이 비인간적이라는 비판이 있다.

심지어 도쿄의 쿠후쿠쿠지(Koukokuji)



일본 불교계가 지나친 상업화로 비판받고 있는 가운데, 도쿄의 쿠후쿠쿠지(Koukokuji) 사찰은 '자동화 시스템의 실내묘지'를 상업 전략으로 내세웠다.

사찰은 '자동화 시스템의 실내묘지'를 상업 전략으로 내세웠다. 스마트 카드로 보안되는 유골함에 유골을 보관하고, 유족들은 원격으로 관리할 수 있다. 쿠후쿠쿠지 사찰이 개설한 웹사이트에서는 가격과 옵션사항 등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상업화에 빠져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행태"라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에서 <종교와 일본 사회의 위기>라는 책을 펴낸 마크 멀린스(Mark Mullins)는 "불교의 장례식에 대한 선호가 감소함에 따라 많은 가족들이 대신 비종교적인 방법을 택하고 있다. 숲이나

바다에 유골을 뿌리거나 가족묘에 매장하는 것 등이 그 예"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일본 불교계가 불자 확보 및 재정 증원 나섰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보고에 따르면 지나친 상업화가 큰 반감을 불러일으켰다는 평가다. 'The Irish Times'는 "스님들은 점점 고령화되고 상좌 스님들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불교계 장례사업도 고비용과 고령화, 저출산 등 문제로 점점 더 쇠퇴할 전망이다. 여론의 무관심 속 일본 불교는 점차 그 빛을 잃고 있다"고 전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캐나다 침례교회, 사원으로 '재탄생'

스리랑카·버마·태국 불교계 공동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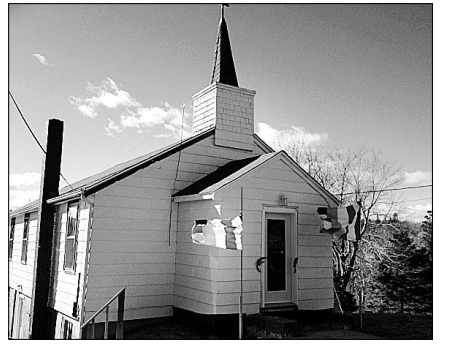
스리랑카서 이운한 백불 봉안

캐나다 노바스코샤 핼리팩스(Halifax)에 처음으로 상좌부 불교사원이 문을 열었다.

'CBCNEWS'는 11월 8일 "지난 9월 헤링코브(Herring Cove) 지역의 침례교회를 매입한 핼리팩스 상좌부 불교계가 1개월간의 리모델링 과정을 거쳐 지난 11월 4일 불교사원을 개원했다"고 보도했다. '대서양 상좌부불교문화(ATLANTIC Theravada Buddhist Cultural, 이하 ATBC)'와 '명상협회(Meditation Society)'가 봉행한 개원식에는 핼리팩스 지역의 스리랑카·버마·태국계 캐나다인 1백 20여 명이 대거 참여했다.

"개원식에 참여한 이들 대부분 사원 리모델링을 손 건어붙이고 도운 자원봉사자들"이라고 설명한 램야 세마라세케라(Ramya Samarasekera) ATBC 총무는 "핼리팩스 첫 상좌부 사원은 평화, 사랑, 친절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역 사회에 알리는 데 노력할 것"이라며 각오를 보였다.

1개월 남짓 진행된 리모델링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대부분 일과 후인 저녁 시간을 선택 내어주고 바닥과 지붕을 개조하고 불단을 만드는 데 매달렸다. 특히 자원봉사자들은 침례교회의 첨탑 구조를 살리고 금속 자재를 텃대 장엄하는 과정에 적잖은 노력을 쏟아부었다.



핼리팩스 상좌부 불교사원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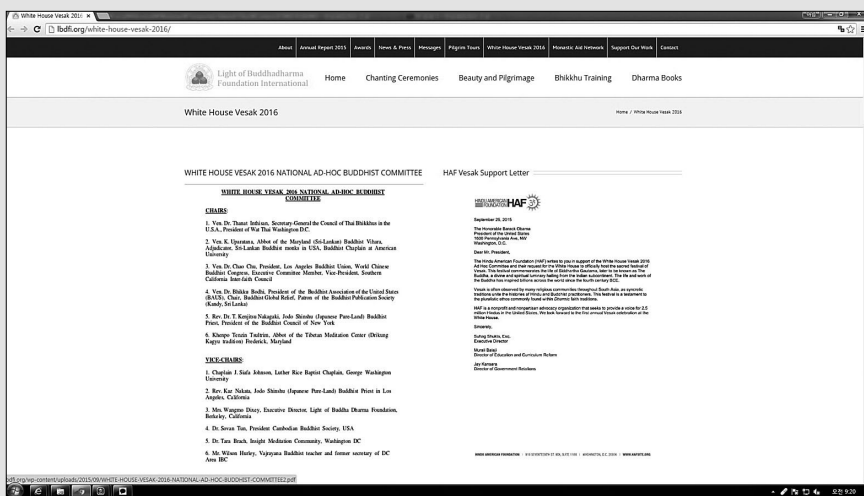
"주불로는 스리랑카에서 이운한 백불(White Buddha)을 봉안했고, 토론토 상좌부 불교를 이끌었던 만네 시리난다(Bhanthe Sirinanda) 스님을 주지 스님으로 모셨다"고 전한 세마라세케라 ATBC 총무는 "법회와 불교축제는 물론 명상교실과 무료급식 등도 상시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CBCNEWS'는 세마라세케라 ATBC 총무의 말을 인용, "핼리팩스의 스리랑카·버마·태국계 불교공동체는 법회를 봉행하기 위해 인근 티베트계나 중국계 사원을 찾아가야 했고, 일부는 상좌부 불교사원이 있는 다른 도시로 이주했다"고 언급하고 "따라서 핼리팩스 상좌부 불교사원은 앞으로 지역의 상좌부 불교공동체의 결속력을 높이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美 백악관서 '베삭 법회' 봉행위해 청원운동

아시아 불교연합체 전미특별불교위원회, 불교계 최대축제 추진



2016년 백악관 베삭법회 개최 청원운동 공식 웹사이트.

아시아 출신 재미불교인들이 미국 백악관에서 '베삭(Vesak) 법회'를 봉행하 고자 청원운동에 나섰다. '베삭(Vesak)'은 남방 음력체계로 5월 15일에 해당하는 부처님 탄생일과 성도일, 열반일을 모두 포함하는 날이다.

2016백악관베삭법회추진전미특별불교위원회(이하 전미특별불교회, 한국불교대표 집행위원 성원)는 11월 6일 "지금 미국에서는 한국, 티베트, 중국, 일본, 스

절 밤 축제 기도회, 힌두교 디와리 빛 축제 기도회, 이슬람교 라마단 금식회향 기도회 등 정기 개최하고 있다. 그러나 불교의 가장 성스러운 날로 일컬어지는 베삭 법회만 개최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전미특별불교회는 "워싱턴 DC지역 불자들이 오래 전부터 각종 회의에 참석하며 베삭 법회 청원운동을 전개해왔다"면서 "향후 뉴욕 원각사, 로스앤젤레스 고려사, 필라델피아 관음사 등 미국 여러 사찰과 수행단체들이 적극 동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6년 백악관 베삭법회 개최 청원운동 관련 사항은 공식 웹사이트(<http://lbdfi.org/white-house-vesak-2016>)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청원서 양식을 비롯한 기타 사항은 집행위원 성원 스님 이메일(chanjumun@hotmail.com)로 문의 가능하다.

전미특별불교회에 따르면 현재 백악관에서는 기독교 조찬 기도회, 유대교 유월

전 종교 중 불교 행사만 없어
2016년 5월 20일 봉행 목표
뉴욕 원각사 등 한인사찰도 동참

박아름 기자



중 가르체 티베트족자치주, 대중법회 성료

중국 쓰촨성 가르체(Garze) 티베트족자치주 설타르카운티(Serthar County)에 있는 라룽갈(Larung Gar) 계곡에서 7만여 명이 참여한 대규모 대중법회가 봉행됐다. 'NBCNEWS'는 11월 캐나다 사진작가 케빈 프레이어(Kevin Frayer)의 사진과 전언을 인용, "4천m의 고도에서 7일 동안 진행되는 대중법회 내내 7만여 명 티베트 불자들은 스님들의 법어 한마디 한마디에 신심을 키우며 오체투지를 하고, 저녁에는 3m 남짓한 공간에 머물며 내일의 법회를 기다렸다"며 라룽갈 대중법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NBCNEWS'는 "287개 티베트계 사원이 참여한 올해 대중법회에는 특히 한족 불교도 5백여 명이 동참해 눈길을 끌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대중법회를 주관한 라룽우밍(Larung Wuming) 불교학교 측은 "티베트의 종교와 사회 전통을 유지하기 위한 디딤돌"이라고 이번 대중법회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티베트 대중에게 고유 종교와 문화적 가치를 교육하기 위해 광범위한 노력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禪農教團 宗務法人

우리불교 曹溪宗

입·중·안내

1 입중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접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중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 (간부스님에 한함)

중정 홍산 현불 종도모집

-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북로 149번길 32번지 마강사
- 총무원 : TEL 041)832-4153 / FAX 041)833-4154

세계불교종단연합회 (WBOA)

불교국가간 문화 교류를 통한 힐링 불교의 재탄생으로 더 큰 불교 세계를 이루고자 종단 참여를 공고합니다.

☎ 041)832-4153 /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1년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중정)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집합니다.

